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8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 구 분 | 내 용 |
|------|--|
| 제목 | 웰컴 투 범발골 |
| 수상내역 | 우수상(재단이사장상) |
| 작가 | 김세진, 김세정 |
| 공모분야 | 트리트먼트 |
| 장르 | 뮤지컬, 만화 |
| 소재 | 범발골 명암약수 설화 |
| 시놉시스 | <p>“범발골엔 무슨 일로 갑니까? 사람 발길 끊긴지 오래됐는데.”</p> <p>택시기사 왈, 옛날부터 호랑이가 살았던 곳이라 범발골이란 이름이 붙었다.</p> <p>현재도 호랑이를 본 사람이 있다는 등,</p> <p>그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는 등 흥흥한 소리가 많아</p> <p>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으며,</p> <p>산골 초입도 못 가 팔자와 동구를 내려주고 뺑하니 출발한다.</p> |



:: 우수상 ::

재단이사장상

웰컴 투 범밭골



김 세 진 김 세 정



웰컴투 범발골



*이미지는 작자의 상상과 비슷한 그림과 만화를 찾아 차용함

이미지 출처 :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센터 <http://www.culturecontent.com/index.asp>

1 청 주 원 형 활 용 소 개

1. 범발골 명암약수 설화

① 활용소재

| 문화원형 | 명암약수 설화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
| 설화 | 이곳은 1920년대까지만 해도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밤낮으로 호랑이가 출몰하였으며, 이곳을 범발골이라 불렀다. 옛날 청주 고을 박생원의 출가한 딸이 이곳에서 100일 동안 요양을 하면서 약수를 마시고 중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현재 약수터를 중심으로 유원지가 형성되어 있다. |

범발골 명암약수 전설에 대한 의문은 작품 줄거리의 가장 큰 뼈대가 되었다. ‘전설 속 여인이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범발골 속에서 100일 동안 명암약수를 마시며 정양(靜養)하였는데, 그 여인이 호랑이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궁금증은 자료 조사 도중 발견한 ‘호무골(虎舞谷) 전설’을 만난 후 해소되었다. 작자는 각각 독립된 두 전설에서 호랑이라는 공통된 소재를 추출, 상상을 더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시켰다. 그 결과, ‘왕년 아이돌 댄스 가수였던 주인공 박팔자(女)가 병을 고친다는 신비의 명암약수를 찾아 범발골로 들어가지만 맹수인 호랑이들을 만나, 살아남고자 호랑이들의 춤 선생이 된다.’는 줄거리가 탄생했다.

② 이미지



*이미지 출처 : 디지털청주문화대전, 네이버 백과사전

③ ‘범발골 명암약수’ 설화 내용

청주 고을 남들(현 수곡동)에 사는 박생원이 딸을 대머리(청주시 방서리)에 사는

한서방에게 시집보냈다. 얼마 동안 행복하게 살던 딸이 우연히 병이 났는데, 종다는 약을 다 써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죽음에 이르게 된 박생원의 딸은 남편에게 친정으로 가서 지내다가 죽게 해 달라고 하였다.

박생원은 사위 한서방과 상의한 끝에 딸을 집으로 데려왔다. 딸을 데려다 놓은 박생원 내외는 딸을 정성껏 간호하였으나 딸의 병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천수사(天壽寺) 스님이란 분이 찾아와 시주할 것을 청하였다. 스님은 집안에 환자가 있는 것을 보고 환자를 살핀 뒤에 말했다.

“환자의 병은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면서 백일 동안 정양(靜養)해야 합니다. 환자가 정양할 곳으로는 범발골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박생원의 부인은 딸을 호랑이가 들끓는 범발골에 데려다 놓는 것은 호랑이 먹이로 주는 것이라면서 극력 반대하였다. 그러나 박생원은 딸은 이미 죽은 목숨이니 최후의 방법을 써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위 한서방과 상의한 뒤에 숲 속 적당한 곳에 움막을 짓고, 딸을 데려다 놓았다. 박생원은 거기에 100일 동안 먹을 양식을 남겨 두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

한 달 후에 한서방이 흉몽을 꾸었다면서 달려왔다. 딸을 보내고 마음이 불안하던 박생원은 딸의 시체라도 찾아서 묻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서방과 함께 움막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뜻밖에도 살아있는데, 화색이 돌고 몰라보게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크게 놀라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그녀가 말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물 맛을 보니 톡 쏘는 맛이 나고,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밥을 지어 먹기도 하였는데, 차츰 몸이 좋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지더군요.” 라고 말하면서 물을 한 바가지 떠다 주었다. 박생원과 한서방은 물을 마셔본 뒤에

“이것은 하늘에서 주신 영천(靈泉) 약수(藥水)임이 분명하다.”고 감탄하면서 기뻐하였다. 박생원의 딸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한서방과 함께 잘 살았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투어 이곳을 찾아 약수를 마셨다.

*** 설화 출처 : 디지털청주문화대전**

2. 호무골 설화

① 활용소재

| | |
|------|--|
| 문화원형 | 호무골 설화 |
|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
| 설화 | 이곳은 지세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사람들이 살지 않았는데, 호랑이가 춤을 추며 좋아한 곳을 살펴보니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와서 집을 짓고 살았고 이렇게 마을이 이루어졌다. 마을 이름을 호랑이가 춤을 추었다고 하여 ‘호무골[虎舞谷]’이라 하였다. |

전설 속, ‘춤추는 호랑이’라는 소재는 작품의 줄거리와 캐릭터 창출에 큰 모티브가 되었다. 호무골 전설 속 호랑이들과 범발골 전설 속 호랑이들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상상의 줄기를 뻗어나가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탄생하였다. 호무골에 사는 호랑이들은 예로부터 춤을 신봉하여 호무족이라 불렸고, 호무족의 수장 역시 매년 열리는 댄스 배틀에서 승리한 호랑이가 물려받는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몸치인 한 호랑이 가족은 죽기 살기로 연습해도 댄스 배틀에서 주구장창 탈락하고, 결국 호무족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무골에서 쫓겨나 범발골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명암약수를 구하러 들어온 왕년 댄스 가수 박팔자를 통해 댄스를 배우며 역습의 기회를 노린다.

② 이미지



*이미지 출처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057>
 디지털 청주 문화대전

③ ‘호무골’ 설화 내용

호무골은 예로부터 햇살을 많이 받는 곳이었다. 조선 말기 풍수지리에 밝은 사람이 야산 기슭의 지세를 보니 장차 번창할 지형이라, 그는 그 곳에 집을 지을 결심을 하고 잡목을 베고 터를 닦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근처에 물이 나는 곳이 없음을 알고 터 닦

는 일을 그만두고 떠났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남면 궁말에 살던 이명도라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다가 지세(地勢)를 살피고는 마음이 끌리어 정착할 결심을 하였다. 먼저 누구인가가 닭다가 만 집터를 다시 손질하는 한편, 물을 얻기 위해 근처의 낮은 곳을 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파 보아도 물은 찾을 수 없었다.

그 곳에 정착할 것을 포기하고, 다음 날 다른 곳을 찾아 떠나기로 하였다. 그 동안 닭아놓은 집터에 누워 잠을 청하였다. 달이 환하게 비치는 숲속에서 이름 모를 벌레소리와 짐승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가 보니, 건너편 계곡의 평평한 곳에서 호랑이가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우거진 숲속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였다.

몇 번을 그러더니,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가 산과 들이 울리도록 크게 소리치고는 동쪽으로 사라졌다. 그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그곳을 가보니, 바위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호랑이가 여기 와서 물을 마시고 춤을 추며 좋아하였음을 알았다.

그는 다시 터를 닭아 집을 짓고 그 곳에 살았다. 그 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와서 집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하여 마을을 이루게 되니, 마을 이름을 호랑이가 춤을 추었다고 하여 ‘호무골[虎舞谷]’이라 하였다.

* 설화 출처 : 디지털청주문화대전

② 등장인물 소개

*이미지는 작자의 상상과 비슷한 만화를 찾아 차용함

왕년 아이돌 걸 그룹의 멤버였다.

은퇴 후, 초등학교 동창인 동구와 결혼을 했다. 결혼 10년 차, 남편의 사랑도 가수로서의 인기도, 모두 식어버린 지금 습관처럼 팔자타령을 하다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버렸다. 병을 고치러 간 곳에서 호랑이 밥이 되게 생겼으니 이름대로 따라가는 인생인건지는 몰라도 팔자가 사나운 것도 같다.



박팔자 (35)



한동구 (35)

팔자의 남편.

점술, 구술, 무술, 술, 등등..

‘술’ 자로 끝나는 건 죄다 약하다.

팔자타령을 하는 아내 팔자를 달랜답시고

하루 멀다하고 점집을 드나들더니

팔자를 범발골로 들여보낸 장본인.

<범발골 호랑이 가족>

*이미지는 작자의 상상과 비슷한 그림을 찾아 차용함
이미지 출처 :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센터 <http://www.culturecontent.com/index.asp>

젊은 시절 존재 자체만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악질 포수 이명도와는 오래전부터 대립관계. 예전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없고 현재, 팔자의 주머니 속 알사탕을 빼앗아 먹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몸치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데 사위 또한 몸치인 놈이 들어와 못마땅하다.



타고난 방랑벽으로 결국 아프리카 여행 도중 만난 스라소니와 결혼하여 새끼 호랑이(스라소니)를 낳았다. 스라소니와 헤어진 후, 고향인 호무골로 들어오긴 했지만 호무족이 분명함에도 춤에는 관심조차 없다. 엄마 호랑이의 끈질긴 구애를 받아 재혼했고, 현재는 방랑 인생을 청산, 본격적으로 춤을 배우고 있다.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닌다. 출생의 아픔에서 오는 반항심 때문이란 걸 가족이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하다. 호랑이도, 스라소니도 아닌 것 같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크다. 아빠를 미워하고, 새엄마인 엄마 호랑이와는 오히려 잘 지내는 편이다. 새끼지만 호랑이의 타고난 맹수성이 강해 박팔자에게 늘 두려움을 안겨준다.



이혼한 아빠 호랑이에게 다시 구애를 보내 결혼에 골인할 정도로 집념이 강하다. 대범하고 쿨한 성격이며, 거울을 늘 끼고 다니며 자신의 미모를 체크하는 것과 눈썹 정리가 취미다. 피부를 위해 채식으로 입맛을 바꾸겠다고 늘 결심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다.

③ 트 리 트 먼 트

이 이야기는

왕년엔 유명했지만 현재는 한물간 아이돌 1세대 걸 그룹의 멤버,
박팔자(여, 35)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녀가 팔자인 이유?

팔자(八)눈썹이어서, 팔자주름이어서, 팔자걸음이어서, 이유도 다양하지만
팔자가 세다는 게 아마도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학창시절 줄곧, 베스트 프렌드에게 남친을 빼앗겼고,
타고난 미모와 노래, 춤 실력으로 어렵사리 연예계에 데뷔했지만
그룹 내에서는 리더였음에도 항상 2인자였던 박팔자.
결혼 적령기, 유명 연예인 혹은 정계, 재계 인사들과의 결혼을 꿈꿨건만
팔자가 매일 안고 자게 된 사람은 평범하다 못해 찌질한 남자 한동구였다.

팔자의 초등학교 동창인 동구.

점술, 구술, 무술, 술, 등등.. ‘술’ 자로 끝나는 건 죄다 약한 이 남자!
점술에 약한 그는
팔자타령을 하는 아내 팔자를 달랜답시고 하루 멀다하고 점집을 드나들고,
구술(口述)에 약해
수시로 말을 더듬는, 초딩보다 못한 언어 실력을 구사한다.
무술에도 약해 언젠가 팔자 앞에서 중딩들에게 죽도록 맞은 적도 있다.
그 중에서도 한동구가 제일 약한 건 알코올~ 술!
그래도 술기운에 팔자에게 프러포즈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동구는
최고 걸 그룹 멤버였던 팔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

팔자를 위해서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했던 동구.

하지만 결혼 10년차인 지금
팔자는 더 이상 동구에게 여신이 아니라 퍼진 아줌마에 불과하다.
게다가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팔자와 동구지만
이름대로 따라가는 팔자의 인생 때문인지 몰라도
둘 사이에 아직도 아이가 없다.
팔자는 동구의 식어버린 사랑과 은퇴 후 추락한 인기에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팔자타령을 늘어놓다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다.
급기야 불면증, 거식증, 무기력증까지 세트로 갖게 된 그녀.

온갖 약을 먹어보지만 전혀 듣질 않는다.

팔자는 이제 산송장처럼 산다.

아내 걱정애 똥줄이 타던 동구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점집을 찾아간다.
점쟁이 왈,

**“화병의 일종이야!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도 없어.
쫓쫓, 이대로 가다가는 백일 안에 저승행이야.”**

동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해결 비법을 알려달라며 울부짖는 동구.

점쟁이는
돌아오는 보름날 밤,
청주의 산골로 들어가 어떤 병이든 다 고친다는 명암약수를 찾으라고 말한다.
신비한 약효가 있는 샘물이니
그곳에서 100일 동안, 물을 마시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면
팔자의 기구한 인생이 뽕뽕 뚫려 좋은 복이 굴러들어 올 것이란다.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며 연신 고개를 꾸벅대는 동구에게
점쟁이의 날 선 말이 돌아온다.

**“수명 줄이 얼마 안 남았어.
그 안에 약수를 못 찾으면 아내의 송장을 치게 될 거야.
다만, 약수는 꼭 혼자 찾아야 돼.
수명은 누가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법이 아니지.
마음의 고요와 평화는 결국 혼자서 뚫어야.”**

어찌됐든 점쟁이의 비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동구.
팔자에게 점쟁이의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지만
이미 무기력에 빠진 팔자의 귀에 제대로 들어올리가 없다.

팔자의 신경은 나날이 예민해지고, 물조차 넘기기 힘들어 피골이 상접하다.
팔자도 자신이 답답하다.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약도 듣지 않고,

한물간 연예인으로 취급받는 게 견디기 힘든 것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이유인 건지,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보는데, 여하튼 모든 게 답답하기만 하다.
사는 것도 지겹고 흘러가는 시간은 더 무섭다.
그런데 해결 방법을 도통 모르겠다.
언젠가부터 점집을 제집 드나들듯 했던 남편이
비법이랍시고 뭘 듣고 온 모양이긴 한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산골로 들어가 약수를 찾아 마시라니.
게다가 이승에서 살날이 백일도 안 남았단다.
점쟁이 말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지긋지긋한 불면에 시달리느니 영원히 잠드는 게 속 편할지 모르니까.

이렇듯 괴로움을 간신히 견디는 나날이 지나가고
드디어 점쟁이가 말한 보름날이 돌아온다.

회사에 출근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구가 집에 있다.
동구는 비장한 얼굴을 하고 팔자에게 두 장의 차표를 내민다.
서울발 청주행 기차표다.

‘산골엔 안 들어가겠다는데, 저 인간이..’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는 팔자가 희끄무레한 눈으로 동구를 찌려보는데
동구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한다.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급기야 어린 아이처럼 펄펄 우는 동구.
찌질한 남편이지만 의외로 눈물은 없는 동구였는데..
술기운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고백은 영영 해보지도 못할 거라며
프러포즈를 하면서 말보다 눈물을 더 쏟아내던 그날 이후로
팔자는 동구의 눈물을 보지 못했었다.
그런 동구가 운다. 콧물범벅이 되어 울면서 얘기한다.
신의 약수든 아니든, 점쟁이의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속는 셈 치고 한 번 찾아보잔다.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 팔자야.”

팔자의 귀가 열린다.

그래, 동구에게 고백 받던 그 날에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 말을 들었었다.
미사여구 없는 이 말이 팔자는 좋았기에 동구의 마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팔자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인다.
동구의 눈물, 콧물, 마음이 팔자를 움직인 것일까?
드디어 팔자가 결심한다.
결국 청주행 기차를 타는 두 사람.
창 너머 풍경을 바라보는 팔자.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다.

이윽고, 청주역에서 내린 팔자와 동구.
택시를 타고 시내를 지나, 점쟁이가 알려준 산골로 들어가려는데
택시기사가 의아한 눈길로 팔자와 동구를 쳐다본다.

“범발골엔 무슨 일로 잡니까? 사람 발길 끊긴지 오래됐는데.”

택시기사 왈, 옛날부터 호랑이가 살았던 곳이라 범발골이란 이름이 붙었다.
현재도 호랑이를 본 사람이 있다는 등,
그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는 등 흥흥한 소리가 많아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며,
산골 초입도 못 가 팔자와 동구를 내려주고 썩하니 출발한다.

달빛만이 비추는 암흑 속의 산골.
동구와 팔자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산골로 들어가던 때,
동구의 손을 놓으며 돌아가라고 말하는 팔자.

“약수든 뭐든, 혼자 찾아볼게.”

동구는 팔자가 걱정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린다.

**“백일 뒤에 건강하게 보자, 팔자야.
그 뒤에도 연락이 없으면 반드시 찾으러 올게.”**

자꾸 뒤돌아보는 동구의 시선을 팔자는 일부러 피하며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기 시작한다.

몸은 고단하지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잠이 오지 않는 팔자.
공포에 질려 있던 중,
느닷없는 새의 날갯짓 소리에 놀라
자지러지며 앞만 보고 뛰기 시작한다.
한참을 뛰다 지쳐 쓰러진 팔자.
고요한 정적 속,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한참을 뛰었더니 목이 바짝바짝 마르다.
물소리를 쫓아 물가로 달려가 허겁지겁 물을 먹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물을 먹던 팔자의 눈이 커진다.
꽉 막혔던 마음이 뻥, 하고 뚫리는 이 느낌!

“명암약수다!”

본능적으로 이 물이 명암약수인 걸 직감한 그때,
주위에 시퍼런 불빛이 하나 둘 다가온다.
팔자가 주머니에 든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자,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는 호랑이 가족 보인다.
시퍼런 불빛의 정체가 번뜩거리는 호랑이의 눈동자임이 밝혀지고,
호랑이들의 포효소리에 기절해버리는 팔자.

다음날 아침, 호랑이 굴.
그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던 팔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절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달콤한 잠을 자고 깨어난다.
하지만, 호랑이들의 말소리가 들려오고 현실을 직감하는 팔자.
팔자가 사나워도 정도껏이어야지,
명암약수를 찾은 바로 그때 하필이면 호랑이를 만나다니!
이제 팔자는 호랑이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다.

호랑이들의 눈을 피해
휴대폰 버튼을 이리저리 눌러 구조요청을 해 보려고 하지만
산골 속이라 신호가 잡힐 리 만무한데다
긴장한 팔자의 손이 애꿎게 휴대폰 동영상 버튼을 눌러버린다.
순간, 팔자의 걸 그룹 시절 무대 동영상이 실행된다.
데뷔 전 연습 시절부터 10년 전 은퇴하기 전까지

다양한 무대의 동영상이 담긴 휴대폰.
그 안에 담긴 팔자의 댄스 동영상.
그리고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조그만 휴대폰 앞으로 모여든 커다란 호랑이들의 머리.
할아버지 호랑이, 아빠 호랑이, 엄마 호랑이, 새끼 호랑이까지.

“최신 춤인가? 죽이는데?”

“우리가 저 정도만 뛴어도 호무골에서 쫓겨나진 않았겠지?”

“그러게, 저런 춤 선생만 있었어도 범발골로 쫓겨나진 않았을 텐데.”

“우와! 가운데 서서 춤추는 여자 말이야. 춤 실력 대단하다!”

음악에 따라 널찍한 등판을 덩실덩실, 굽직한 다리를 요리조리 움직이며
서서히 춤을 추기 시작하는 호랑이 가족.
한바탕 춤춘 덕에 허기가 지는지
팔자를 바라보며 **“바베큐를 해 먹을까요?”**에서부터 시작해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늘어놓는 호랑이들.
팔자의 온 몸이 굳어지고,
호랑이들이 팔자에게로 다가오던 그 때, 벌떡 일어서는 팔자!

“잠깐! 그 동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접니다!

제가 그 춤 가르쳐 드리지요!”

10년 전 데뷔시절의 무대를 재현하는 팔자.
호랑이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현란한 댄스를 처절하게 보여준다.
한물 간 팔자의 댄스를 우러러보는 호랑이들.
팔자는 살기 위해 호랑이들의 춤 선생이 되기로 결심한다.
점쟁이의 말에 따르면 100일 동안 명암약수를 먹어야 한다고 했고
어떻게든 그때 까지 살아만 있다가 그 후에 탈출하면 되는 것이다!
마음을 다지는 팔자. 살고 싶지 않던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팔자의 속사정을 모르는 호랑이 가족.
게다가 호랑이들은 명암약수의 존재를 모르는지
그 귀한 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실정.
이야기 속 누군가는 살기 위해 천일을 이야기한다고 했던가?
팔자는 살기 위해 100일을 춤춘다.
그것도 호랑이들 앞에서.

이후로 팔자와 범발골 호랑이 가족의 100일 동거가 시작된다.
범발골 호랑이 가족의 사정을 듣게 된 팔자.
그들도 팔자만큼 사나운 팔자를 갖고 태어난 듯하다.
범발골 호랑이 가족에 따르면
호랑이들의 집단 서식지는 원래 범발골 옆, 호무골이란다.
춤추는 호랑이 동네라는 ‘호무골’ 마을이름처럼
예로부터 호무족은 춤을 신봉하여 호무족이라 불렀고,
매년 호무족의 수장을 뽑는 것 역시
댄스 배틀에서 승리한 호랑이가 물려받았다고 한다.
범발골 호랑이 가족이 아직 호무골에 살던 시절,
천성적인 몸치라 늘 주눅이 들었던 호랑이 가족은
죽기 살기로 연습도 해 보았지만, 참가하는 댄스 배틀 마다 탈락했고,
춤추는 호랑이인 호무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수장 눈 밖에 들어 범발골까지 쫓겨 왔단다.
호랑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한 팔자는
연말 댄스 배틀에 나갈 수 있도록
호랑이들을 훈련시키기로 결심한다.
가수 데뷔 전보다 열심인 팔자,
하지만 호랑이 가족의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춤추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 호랑이 가족.
할아버지 호랑이는 팔자가 가져온 알사탕을 뺏어먹는데 열중하고,
아빠 호랑이는 그래도 동물의 왕인데
인간한테 춤을 배우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팔자를 못마땅해 하고,
엄마 호랑이는 매일 거울을 보며 눈썹만 빗고,
새끼 호랑이는 어딘가 그들이 있어 보이는 반항아 같다.

사실 새끼 호랑이는 숨겨진 아픔이 있다.
새끼 호랑이의 엄마는 호랑이가 아니라 스라소니다.
방랑벽이 있었던 아빠 호랑이가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다가 만난 스라소니와 낳은 자식이 새끼 호랑이였고,
자신이 순수 호랑이 혈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새끼 호랑이는
예전 호무골에 살던 시절부터 늘 놀림을 받아왔었다.
이런 이유로 아빠 호랑이를 미워하던 새끼 호랑이는
범발골 안에서도 늘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다니기 일쑤였던 것이다.

범발골 밖은 나가지 말라는 아빠 호랑이 말을 어기고
오늘도 범발골 밖을 어슬렁거리던 새끼호랑이는
호무골 호랑이 패거리를 만난다.
근본도 없는 자식이라느니, 그래서 춤을 못 춘다느니
새끼 호랑이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호무골 호랑이들.
분을 이기지 못한 새끼 호랑이는
춤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이겨주겠다며 댄스 배틀을 앞당기자고 한다.
배틀에서 이기는 자가 호무족의 수장이 되며,
자신이 지면 범발골을 떠나 호무골 호랑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고
엄포까지 놓는 새끼 호랑이.
하지만, 배틀 일자는 한 달 후!
집에 돌아온 새끼 호랑이에게 이 사실을 들은 범발골 호랑이 가족은 비상이다.
팔자에게 춤을 가르쳐달라고 진심으로 부탁하는 호랑이 가족.
호무골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팔자는 은퇴 후 떨어진 인기 때문에 우울했던 자신의 모습과 어딘가 비슷한
호랑이 가족을 보며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각자 꿈꾸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멋진 일임을 새삼 깨달으며
훈련에 박차를 가한다.
호랑이 가족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춤 선생이 되었던 팔자는
어느새 호랑이 가족의 또 다른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댄스 배틀을 앞둔 전 날,
평소처럼 범발골 명암약수를 통에 담은 후 호랑이 굴로 돌아가던 팔자.
뒤통에 발이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한 남자를 만난다.
범발골에 웬 사람이 들어왔을까 의문인데다, 어딘가 야비해 보이는 남자.
하지만, 남자의 발에 흐르는 피를 보고는 놀라
자신이 마셔야 할 명암약수를 건네준다.
남자가 물을 마시자 발의 상처가 감쪽같이 치유되고.
물의 정체가 궁금했던 남자는 팔자에게
약수의 기능과 위치 등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지만,
팔자는 자신도 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난다.

어느덧, 댄스 배틀 당일.

경연을 위해 범발골 안으로 호무골 호랑이들이 모여들고,
팔자는 호랑이 가족에게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드디어 긴장감이 넘치는 배틀이 시작되고,
노후한 할아버지와 팔자만이 남아 두 마을 호랑이들의 경연을 구경하던 때.
할아버지 호랑이가 숲 근처에 놓인 덧과 찢자국을 발견한다.

**“이명도, 그 놈이 온 게야.
결국엔 끝을 보려는 셈이로구먼.”**

얼굴이 어두워진 할아버지 호랑이.
과거 호무족과 자신을 잡으러 다녔던 악질 포수 이명도가
범발골로 들어왔음을 직감한다.
할아버지 호랑이는 팔자에게 혹시라도 큰 소리가 들리면
호랑이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진다.

댄스 배틀의 열기가 한창 더해진 순간,
커다란 폭음과 함께 총성이 들려온다.
총소리에 댄스 경연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팔자는 범발골 호랑이 가족에게
할아버지 호랑이에게 이명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다 말하고,
범발골 호랑이 가족은 위기를 짐작하고
포수 이명도로부터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
바로 그때!

“이명도 그 놈은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 호무족 전부한테 원수라고!”

결국 호무골 호랑이들과 함께 할아버지 호랑이를 찾으러 나선 범발골 가족.
총성이 났던 자리로 가보지만 할아버지가 없다.
순간, 다시 한 번 들리는 총소리!
어느새 나타난 포수 이명도가
할아버지 호랑이를 인질로 잡고 소리친다.

**“그 약수 있는 곳부터 대라고!
네 놈들의 가족을 벗길지 말지는 후에 생각해보겠어!”**

팔자는 이명도가 전날 뒷에 걸렸던 남자임을 알게 되고,
남자의 목적이 호랑이 포획이 아닌 명암약수임을 알아차린다.
할아버지 호랑이가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라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호랑이들.
그때, 무전기 소리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들리고
경찰들과 팔자의 남편 동구가 등장한다.
오늘은 팔자가 명암약수를 먹은 지 101일째 되는 날!
호랑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바쁘게 생활하느라 날짜 계산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100일이 지나도 안 돌아오면, 산골로 다시 온다고 했잖아!
총 소리가 들려서 경찰도 불렀지.”**

동구와 경찰의 등장으로
사건은 일단락되고.

시간이 흐르면.
‘청주 명암동 범발골, 사라진 호랑이들 집단 서식지’ 기사를 보고 있는 팔자와 동구.
동구의 시선이 팔자의 배로 향하면
팔자의 불룩한 배가 드러나며, 팔자가 임신했음이 드러난다.
휴대폰 동영상을 실행하는 팔자.
동영상 안에, 댄스 배틀에서 승리한
범발골 호랑이 가족의 춤추는 모습 보인다.
호랑이들의 유쾌한 춤동작 보여주며 엔딩.

- 끝 -